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남유럽 재정위기 관련 금융·실물경제 모니터링 강화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를 개최함.

-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회사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를 개최함.
- 이번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및 유럽계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함.
 -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와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유동성 및 자본 유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의 조기 포착과 선제적 대응, 비상시 은행별 자금조달계획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함.
 - 국제적으로는 FSB 등을 통해 그리스 지원 진행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임.

□ 지식경제부는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실물경제점검과 수출입 동향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.

- 남유럽에 대한 수출은 2010년 1/4분기 14억불로 비중이 1.4%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이 14.2%로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전체 수출규모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제기됨.
-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수출 및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함.
 - 유럽재정위기 실물점검반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주요업계와의 간담회 및 협의 등을 통하여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.
 -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확산시에는 실물부문에의 전이 차단에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, 수출지원기관과 협조하여 위기와 관련한 수출금융 지원책 마련 및 추가적인 수출마케팅 지원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임.

(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등, 금융위원회 등, 5/7)